엄승열 선생.

엄승열 선생은 1908년 3월 11일에 원동변강 연해주 탄광도시인 쑤찬시,(한인말로 수청) 탄광 로동자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부친 엄이완은 그당시 석탄채굴로동자로 일하시였으며, 차후 부유한지주의 가정에서 고용로동자로 일하시였다. 1920-21년

원동에서의 빨찌산 운동의 시기에는, 유명한 빨찌산 대장
로시아인 레베바 장군의 영솔하에 원동에 소베트주권 수립
을 위한 빨찌산 운동에 참가 하시였다. 원동에 소베트주권이
확립된 이후에는 아버지는 농사에 종사하였으며, 1929-30
년대에 농촌경리 단합화시기에는 아버지는 제일선찬
협동조합에 입회하여 일하시다가 한인강제이주시기인
1938년 봄에 세상을 떠나시었다. 어머니는 1956년에 돌아
가시였다. 엄선생은 1917년에 소학교에 입하여 1921년
에 마감하시고, 1922년에는 로동학원을 필하였다 그후
엄선생은 (1925년까지) 어업 협동조합 로동자로 1925
년까지 나호트까 어장에서 일하였다. 엄선생은 약
간의 밑천을 벌어가지고 유학을 떠나 1926년에는 현재
우수리스크(당시 소왕령)시에 가서 한인사범전문학교
에 입학하여 1929년에 마감하였다. 사전을 나온후 엄선
생은 스끄또부 구역 초중에서 일년동안 교무주임겸 수학
교원으로 일하시고 1930년 8월에는 원동변강 공산청년
회파견으로 모스크바 경제대학에 공부하러 갔으나
대학에 입학할수없었다. 엄선생은 일년간 모스크바
비행기 계기제조공장에서 일년동안 선반공으로 일
하시고 1931년에 또다시 입학시험을 치리여 그대학
계획경제 학부에 합격되여 1935년에 필하셨다.

모쓰크바 경제대학 계획경제학부를 마감한다음 엄선생은 로련 계획위원회 간부국의 파견에 의하여 원동변강 계획위원회에 가게 되였던바 엄선생은 거기에서 다시 파견받아 미하이로부 구역 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1936-1937년간 일하게 되였으며, 원동에서의 한인 강제이주에 의하여 엄선생은 우즈베탄에 오게되였다. 우즈벡탄에 도착한 엄선생은 국가계획위원회의 파견에 의하여 군시, 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걸쳐 페르가나주 계획위원회 부원장을 걸쳐 타슈켄트시 계획위원회 주택 및 사회보장 시설 계획위원회부장으로 1944년 12월까지 일하시고, 1944년 1945 학년도에는 타슈켄트주 중철칙구역 끼로브 국영농장 부락에서 고중학교 교장으로 1945년에 북한에 파견 될때까지 일하시였다.

1945년 8월에 집을 떠난 엄선생은 원동변강 블라지 워쓰또크를 통하여 쏘련군 25군단과 함께 북한 평양에 입성하게되였으며 1947년 4월까지 25군단 민건사령부 통역관으로 일하시였다. 1947년 4월부터 엄선생은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원장으로, 정부의 계획에대한 개략보고자로 계시였다. 엄선생의 가장 활약이 컸으며, 위신있게 일하신 시기는 바로 동족상잔이 시작된 그첫날 부터였다. 그는 국가계

획위원회의 중책을 계속 보시면서 국가 군사위원회
에 요구되는 군수품과 후방물자를 총적으로 계획하면서
전쟁 3년 동안 아주 복잡하게 지내였다. 그의 계획을
통하여 몇만대의 자동차들이 조선 전역에서 재머리가리
에서 현재까지도 어느 산골짝이나 구렁에서 썩고 있는지
얼마나 한 후방 물자, 식료품들이 야간을 리용하여 전선으로 달
리다가 불벼락을 맞아 그자리에서 소각되고 말았는지 이것
을 엄선생은 아마 알고 계실것이다. 아니다, 전선이란 공
급한것이 아니라 계획위원회는 후방인민들로 먹이고, 입히고
하여 전쟁을 이겨내려고 애쓴것은 사실이다. 이때에도
소련파는 먹이고 없어 모도다 로동당의 지시대로 철저하
게 일하시였다. 1950년 10월 초순에 유엔군이 38선
에 접근하여 북한으로 진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
자 유엔군의 폭격만하여도 기진맥진한 평양 간부 가족들
은 정신없이 북으로, 북으로 중국 국경과 소련 가까이로후
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소련출신 간부가족들은 본토
배기 간부들의 가족들보다 배가의 겁을 먹고 덤비였다 그
것은 쏘련으로부터 공산국의 사상을 끌고온 죄때문에 그랬던지 모
르나, 사실은 그러하였다 때문에 소련출신 가족들은 전부다 만
포선을 통하여 소련 가까이, 하얼빈시에 자리잡게 되였다
또 지방 중국인 지도자들은 전쟁하고 있는 조선의 간부가족들이라

아주 따뜻하게 맞웅허여 고등여관이나 좋은 집들에 이들을 배치하였다. 또 조선정부는 특별 대표부를 조직하여 이들의 형편을 돌아주게 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그 당시 엄선생의 부연 박류바 씨는 이가족들의 일반적 어머니 모양으로, 그의의 역할이 대단하였다. 누구의 집에서 어린아이나, 늙은이들이 앓는다 하면 류바 어머니는 밤을 새워가면서 돌보아 주고 감사주었다. 이시기에 할빈 시에서 탄생하였거나, 거기에서 전쟁 3년간 살았으며 공부한 소련출신 간부들의 제 2세대는 현재 나 세 60세 이상되여 벌서 년노금생활에서 자식들이 벌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여 귀엽은 자손들을 만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박류바 어머니에 대한 인정은 누구던지 잊이 않고 외우고 있다.

박류바 씨는 1910년에 원동변강 연해주 수찬에서 탄생하여, 그 탄광도시에서 잔뼈 굵어, 소학도 초중도 졸업하시고 1930년에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다음 계속 의료봉사계통에서 간호원, 준의로 일하시였다.

엄선생은 벌서 유년 시대부터 자기 고향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류바씨를 잘알고 있었다. 두사람은 앞으로 꼭 배필이 되려는 약속을 맺어놓고 엄선생은 모스크바로 유학떠났다. 그러나 엄선생은 약속을 어

기지 않고 1934년에 결혼하였다 결혼후 아름다운 두젊은이들은 많은 고생도 많은 즐거움도 같이 맛보며 일생을 하루와같이 다정하고 친절하게 지내시다가 류바 어머니는 1975연에, 세상을 떠나시였다.

엄선생의 사업은 전쟁이 끝난이후에 더복잡하였다 전후 복구사업은 물자가 궁핍한 나라에서 천가지 만가지를 중국이나 쏘련에서 수입하여야 되였으며 또 새공장 제조소 시설들을 구입하여야 하였다. 많은 공장들의 기계시설들은 형제국들의 원조에 의하여 무상으로 입수하였던바 체코에서 자동차공장, 쏘련에서 트락또르 공장, 중국에서 직조공장 등 종합적으로 쏘련에서 50여개 이상의 공장 10억이상의 무료원조의 대가로 수입하였다.

전쟁 3년사이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며 곤궁함에서 너덜던 인민은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의 세상을 위하며 그래도 애쓰면서 복구사업에 밤낮 맥드는줄 모르고 일하는 이때에 김일성이는 간부 숙청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처음 남로당의 거두들인 박헌영과 이승엽을 처형한다는 북한로동당내에서 가장 위신 있는, 그것은 자기보다도 몇배 위신 있는, 당원들은 당박사라고 칭하면서 존경한 허가이를 1953년 7월 2일에 암살하여 가족도 못보게하고 비밀리에매장하였다 그후 계속하여 쏘련파를 쫓기서 쏘련파를비판

하게하고, 소위 당 사상검토라 명명하고 명세 좋은 그 삼상검토 회의결정으로 철직, 처단, 강직 조동, 유형 사리 파견등을 당간부부는 마음대로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 풍에 걸린 엄승열 선생은 1954년 초에 국가 계획위원회에서 몰려나와 평양 외국어 대학 학장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질과는 정반대인 직무에 조동하였다. 엄선생은 이 직무에서 2년간 일하시고 1956년 초에 로동성 계획위원회에 자신의 발기로 일하시였다. 로동당 간부부는 이것을 용허하지 않고 있다가 적당한 기회를 리용하여, 반당 종파분자 소련파들이 한곳에 몰여 괴수를 꾸미고 있다고 하면서 그자리에서 철직하여 놓고, 처음 당이 파견한대로 다시 그 대학에 가서 로어 교원으로 일하라고 하였다. 이때에 엄선생은 자신은 당의 지시를 실시하는 척 하면서 박류바 사모님을 시켜서 소련대사관 영사앞에 소련귀국 청원을 제출하고, 소련 계획위원회 위원장이며, 예전 학창시기에 동창생이였던 바이바꼬프에게 편지를 보내여, 이곳에서 일하라고 소련공산당은 파견하였으나 일할 수 없어 다시귀국하오니 앞으로 동지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것갔다고 썼다. 바이바꼬프는 그 즉석으로 회답하기를 그러면 오시라고 쓰면서 오시면 일

자리와 사택문제는 염려없이 해결하여 준다고 전화를 하였다. 이때에 엄선생은 당 간부부에 다시 찾아가 전당 청원을 제출하면서 당의 파견으로 외국에 대학에 보내 줄 직 무에서 해임할 지시를 요청하였다.

그후 엄선생은 중앙당 간부부 앞마당을 나오면서 아주 슬픈 눈물을 흘리었다. 소련 공산당에서 파견하여 온후 12년 간 애쓰고 선조들의 조국에서, 자기 조국에서 일하였것만 김일성 이 아리한 종파투쟁, 그것을 자기가 시작하여 놓고서도, 어떻게 하면 자기만 숭배하는 순수한, 한길의 마음을 가진 로동당 을 만들려고, 자기 생각에 좀 딴 맘을 갖고 있다고 생각 되는 간부들을 전부 청산하여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사상 검토 운동을 [illegible]조에 야기하였으나, 무고한 백성만 몇백만 희생될뿐, 기다리던 순결성은 다 헝크러지고, 반대파 진영이 더커가는 것을 불 뿐이였다. 더구나 소련 간부진영 측에서 엄선생과 제일 친하게 일하신 분들은 리동화, 리히준, 천치억, 박덕환 박길남 등 선생들은 소련 종파 주의나 소련 가족주의라고 비평하여도 갈라 놓을수 없는 친구들이였다. 엄선 생은 이들도 몇달 후에나, 1년에 후에 꼭 소련에 돌아오 리라고 연결하면서도 현재 작별하고 먼저 떠나는 일이 섭섭하였다. 결과는 엄선생이 생각한것과 어긋나지 않았다. 엄선생은 소련에 귀국하자 계획위원회 건설 계획부장

으로 임명되여 일하였던바, 계획위원회에는 엄선생
의 이전 동창인 신 표뜰란 또다른 한편 한볼어 사
회보장계획부 부장으로 일하시였다 엄선생은 소련 귀환
이후 12년간 현직무에서 일하시고 1969년에 연금
생활에 넘어갔다. 연금생활을 하시면서 엄선생은
전 소련 지역을 다돌아 다니며 북한에 가서 같이 일
하던 친구들을 찾아 만나보고, 어떻게 하면 조국통일이
조속한 시일내로 일우어지며, 북한의 김일성독재
제도를 허물어고 전인민적 민주제도로 바꿀수있겠
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엄선생과 엄선생의 부인 박류바, 일생 모범적인 배
필로 이루어진 가정, 선량한 부부 사이에서는 아들
형제, 딸 4 형제가 태여나 모두다 대학을 나와
현재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6 남에 중에서도 특히
박병율 선생의 맏 며느리로 된 엄 넬리라는 벌서 10
여년 전 부터 모스크바에 한국학교를 설치하여 놓
고 수백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워 주어 크
다란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공로는 한국에서 인정
하여 주어 그녀는 매년 수십명의 학생들을 인
솔하여 갖이고 한국에 관광도 시킬겸 한국어 견
습도 식히고 있다. 현재에는 그 학교는 우선이 자라나

(현재에는) 소련 각지방에서 몰여온 유학생들로인 하여, 수백명의 진자 한국어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정신으로 교양받았으며 한국어를 소유한 과거 소련 지역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서 거세게 이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각산업, 상업기업소들과 각기관 지어는 각교회들에도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본래 재래의 통역원들도 약간 있었지만 이들은 벌써 년노하고, 또 각기술계통에서 자기기본직업에 종사하고 있기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기술에 손을 풀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렇 때 맞게 조직한 엄녈리 씨의 학교는 모스크바에서도 한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인정받으며 움직이고 있다 엄선생의 아들 형제중 차남 엄펠릭쓰는 모스크바에 뿌리박고 급속하게 융성하여 가는 합작기업소의 지도자로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제적 상업, 산업, 과학기술도입에 전력을 다하여 명성을 떨치고 있다. 특히나 양단되어 있어 우리들에게 빼저린 아픔을 주고 있는 우리 조국의 신속한 민주평화통일을 위하여 구국전선 사무총장으로 있는 최 아파나씨 지도하에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인 허왈레리, 장왈레리 등 여러 동지들과 더부러 만사 조직사업에 사심없는방조를 주고 있다. 이렇게 엄펠릭쓰는 자기부친의 사상과 의지

를 게웅하면서 해마다 각 곳에서 진행되는 구국전선 대회들에 매번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자기의 철저한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대회의 결정 실천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엄용일 선생은 1969년에 연금생활에 나와 근 10년 동안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시면서 매일같이 조국에 대한 소식이 실린 신문 잡지 등을 읽으시면서, 특히 북한의 출판물들을 많이 구독하시면서 북한에서 굴러 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하여 염원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1978년 7월 6일에 서거하시였다.

1997년 10월 21일 모스크바에서.